



다들 잠이 든 밤, 오토바이 “부앙~”

“소음기 개조 굉음 소리에 잠 설치” 민원 붐몰 낮시간대도 과속·난폭운전·신호위반 등 예사 제주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할 것”

늦은 밤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일삼는 이륜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불법 튜닝 등으로 굉음을 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난폭 운전으로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 및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제주시 한 커뮤니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연북로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에게 칼치기를 당했다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칼치기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 갈길 갔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제주시내 일대엔 신호를 위

반하는 오토바이들이 자주 보이고 있다. 또 신호 대기시 차 사이로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인도 통행, 과속 등 난폭운전의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운전자 강모(56)씨는 “클락션을 울렸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욕을 하고 차 근처에 딱 붙어서 위협하는 등의 행태를 당한 적이 있다”며 “오토바이가 차 사이로 지나가다 사이드미러를 치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후미등을 개조해 소위 ‘눈뽕’을 하거나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해 배기음 소리를 높여 질주하는 등 소음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심야에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왼쪽)와 신호 위반(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연북로 인근에 살고 있는 허모(64)씨는 “더운 경우 문을 열고 자는데, 집이 도로와 인접해 있어 각종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며 “튜닝된 차·오토바이가 줄지어 지나면 소음 때문에 잠이 깬 적이 한두번 아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내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자동차 포함)는 2017년 405건, 2018년 416건, 2019년 649건, 2020년 736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월 말 기준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364대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들이 불법 개조 차량 등의 몰상식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감사 접대 의혹 관련자 처벌·조치하라”

제주시 한림농협 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감사국 직원들에게 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농민단체들이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등은 15일 민주노동당 제주본부 1층 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대·향응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년마다 이뤄지는 정기감사 기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감사국을 대상으로 총 200만원 상당의 식사 및 비양도 여행을 보내주는 등 5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접대 향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농협중앙회 감사국 직원은 3급(지점장·팀장) 반장 4명과 4급(과장·차장) 감사역 1명 등 총 5명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감사권한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수수하고 감사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강력한 개혁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전국교육공무원직본부 제주지부가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돌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교육공무직 제주지부, 하반기 돌봄 투쟁 선포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업무 가중시켜”

민중노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원직본부 제주지부가 1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했다.

제주지부는 이날 지난해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돌봄전담사 업무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약속을 받아냈지만

약속한 시한인 6월이 되도록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불신감만 키우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는 돌봄전담사들을 더 과중한 업무에 몰아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가 현재의 검토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결국 돌봄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임

을 피력했다.
제주지부는 오는 1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선전전에 이어 19일 제주시 교육부 앞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등 투쟁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제주지부는 “근무여건 개선은 부족한 업무시간 확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공문화된 학급당 학생수 감소 논의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정원 역시 20명 이내로 감축해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여자화장실 들락날락 30대 男 구속

경찰 “불구속 풀려난뒤에도 또 같은 범행...검찰에 송치”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화장실 가는 여성을 뒤쫓아 들어갔다 체포되고 난 후 불구속으로 풀려났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3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내 모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자를 뒤쫓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여자화장실에 무단 출입하는 등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 비위 징계교사 10년간 담임 못한다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

경찰은 영업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8일 제주시내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1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됐다. 사유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법 촬영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난 14일 기소건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모르는 여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지난 1일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받은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마약류 밀수입 30대 집유

마약을 밀수입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소 논외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의 정원 역시 20명 이내로 감축해 안전하고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53만

7600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외국에 있는 성병물상자에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5.01g을 향균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인천 국제공항에서 수령하는 등 약 한달 간 외국 각지에서 6차례에 걸쳐 헤로인, 코카인, 대마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25일, 27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강민성기자

“국제자유도시 공문화 거쳐야”

제주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 공문화를 거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핵심사업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정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일반 도민의 공문화 현장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당 녹음 선택순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환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의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호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폭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두기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만으로도 가꾸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풀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풀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속삭이 울든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이 발급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